창원일보

창원시 "창동예술촌서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"

17일~18일 `설맞이 민속놀이터` 운영

(기사입력: 2018/02/12 18:21) 김광수 기자

지난해 한가위 행사.

창원시는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, (사)창동예술촌 등과 함께 설 연휴기간인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(오후 1시~5시) 이틀 간 창동예술촌 일대에서 시민과 귀향객을 대상으로 한 `설맞이 민속놀이터`를 운영한다.

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마당축제를 만들기 위해 전통민속놀이 행사와 무료 체험 행사 등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.

전통 민속놀이는 ▲널뛰기 ▲투호던지기 ▲윷놀이 ▲전통팽이&현대팽이 대결 등과 무료 체험행사 ▲나만의 소원 연 만들기 ▲복주머니 만들기 등을 경험할 수 있다.

이 기간 동안 설맞이 문화놀이 행사 이외에도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예술전시도 함께 관람 가능하다.

▲창동예술촌 아트센터 2층 전시장 ▲소담갤러리 ▲리아갤러리 등 골목길에서 만나는 작은 전시장에서 특색 있는 작품도 만날 수 있다.

창원시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1,000여 명의 체험재료가 완전히 소진된 점을 감안해 이번 행사는 넉넉한 체험 수량을 확보해 두고 있다.

추석 연휴기간 중에 창동예술촌을 방문하면 각종 민속놀이와 함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볼거리・체험거리가 다양하게 제공되니, 연휴 기간 중 가족나들이로 계획하면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.

김해성 창원시 도시재생과장은 "이번 행사가 세대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되고, 가족 친척,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는 물론 다양한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"고 말했다.

/김광수 기자

닫기